

언론의 자유와 포스트모던주의

Stephen R. C. Hicks, Ph.D.

철학과

Rockford College

옮긴이

Ryan C. H. Park

(이 논문은 *The Objectivist Center*의 2002년 UCLA 여름학기에서 Stephen Hicks 교수의 두번째 강의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여러 논쟁들을 승리로 이끈 Galileo, John Locke, 그리고 John Stuart Mill의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주장들은 각기 다른 철학분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들은 종종 여러면에서 언론의 자유란 주제에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 오늘날의 이해 수준으로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주장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력(reason)은 현실을 아는데 필수 조건이다. (2) 사고력은 개개인의 능력이다. (3) 한 개인이 현실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유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다. (4) 지식(knowledge)을 향한 개인의 자유는 그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주장의 필연적 귀결은 바로 우리가 진리탐구를 위한 전문 사회기관을 설립할 때 (과학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와 같은 기관), 우리는 비로소 창조적인 마인드(mind)의 자유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그리고 장려하는데 있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 우리 사회의 대학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자들의 큰 목표는 “정년보장 (tenure)”를 받는 것이다, 이는 즉 교육 기관으로부터 책임감할 걱정없이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데로 학생들을 가르쳐 본다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정년보장이란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보장.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년 보장이란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 수 십년을 일한 많은 개개인들과 그런 제도와 함께가는 교육의 자유가 다른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막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규범(Speech Codes)의 예들

일단 언론 규범들을 통해 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언론의 억압에 관한 예를 한번 살펴보자. 다음은 University of Michigan 의 언론 규범중 철저히 단속되는 부분이다:

인종, 민족성, 종교, 성별, 성지향성, 신조, 출신, 조상, 나이, 결혼 전/후, 장애, 혹은 베트남전쟁 재향군인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 개인을 비난하거나 희생시키는 그 어떠한 언행...

University of Wisconsin 와 같은 다른 대학교에서는 언론에 관한 규범에 관해 열린 토론을 통해 학생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엄격한 단속을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인종적 혹은 다른 차별적 발언, 별칭, 혹은 다른 표현적 행동들이 어느 한 개인 혹은 다른 개인들에게 하는 경우, 혹은 어떠한 행동, 만일 그러한 발언, 별칭, 다른 표현적 행동들이 고의적으로 행해 진다면: 한 개인 혹은 개인들의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신조, 장애, 성지향성, 출신, 조상, 나이를 무시하거나, 헐뜯거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교육적으로 혹은 다른 대학교 과정과 관련된 여러 작업, 혹은 대학교에서 허가된 단체활동의 환경을 손상시킬 경우

이 두가지의 언론 규범들은 미국 전 지역 대학교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예들이다. 이러한 규범들의 자리매김 뒤에는 미국사람을 대신해서 글을 쓰는 듯한 아시안 Mari J. Matsuda; 히스패닉과 다른 소수민족을 대표해서 쓰는 Richard Delgado; 억압받는 여성을 대표해서 쓰는 Catherine A. MacKinnon; 그리고 희생자의 입장에서 백인남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Stanley Fish 와 같은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있다.

왜 첫번째 수정법안 (the First Amendment)에 의존하지 않는가?

언론에 관한 규범들에 대응하여,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대응책은 “왜 첫번째 수정법안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첫번째 수정법안이 공격적인 언행들까지도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 하지만, 첫번째 수정법안은 정치사회에 적용되는 정치적 규정이다. 그것은 일반사회의 개인들에게 적용이되는 사회적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쟁들을 해결할 만한 철학적 원칙 또한 아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면과 개인적인면의 구분을 볼때, 첫번째 수정법안이 국회는 종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에 그 어떠한 법 혹은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첫번째 수정법안은 정부차원의 행동에 적용이 되고, 오로지 그곳에만 적용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개념을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들이기에 정부의 한

부분이다라는 주장아래 Michi gan 이나 Wisconsin 과 같은 주립 대학교에까지 그 의미를 확장 시킬 수 있다. 그러하기에 첫번째 수정법안의 보호는 모든 주립대학교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필자가 생각하기에 상황에 적합한 주장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몇가지의 이유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끝이 되지 않는 못 함을 보여준다. 첫번째로, 첫번째 수정법안은 사립학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일 사립대학교가 일종의 언론규범을 도입하기를 원한다면, 첫번째 수정법안의 영역에서 보았을때 그것이 절대 불법적인 규범이 될 경우는 완전히 없게 된다. 두번째로, 첫번째 수정법안의 보호는 교육기관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자유의 원칙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자신의 수업 시간에 언론규범을 세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소신껏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자유란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세번째로, 다른 영향력있는 주장이 있다. 교육은 일종의 의사전달과 집회의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위해선 시민성(civility)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수업중이든, 학교 어디에서나 적개심, 반항심, 혹은 위협의 표출은 교육을 가능케하는 여러 사회적 요소들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논쟁은 대학교들이 언론규범이 필요할지도 모를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첫번째 수정법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한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위에 언급된 경우에 관한 여러 논쟁들은 철저히 철학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좌익세력인가?

필자는 첫번째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록 같은 좌익세력이 수년동안 대학교의 압제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침내 대학교가 설정해 놓은 각종의 제한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규범은 좌익세력에 의해 제안되어 지고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알맞는 언론의 제한을 향한 좌익세력의 움직임에는 전략상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왜 교육면의 좌익세력들이 그들의 비판과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는가?” 이 주제로 필자는 지난 번에 한번 얘기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주의에 관한 필자의 두 강의에서, 필자는 위의 주제로 책을 출판한 적도 있다. 나의 판단으로는 왜 좌익세력이 언론규범을 그토록 주창하는가는 바로 좌익세력들이 최근 몇십년동안 많은 실망감을 주는 여러 일들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양사회에서, 좌익은 극도의 좌익 사회주의 세력을 생성하는데 큰 좌절을 맞보았다. 그리고 소련과 베트남, 그리고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체제에 실패를 경험해왔다. 교육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시장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회의 지적세력이 크나 큰 실망감으로 힘들어 할때, 그들은 더 자포자기적인 전략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진행중인 예로서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두가지의 이유로 소수계 우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 한다. 첫번째, 좌익세력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들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좌파(the Left)는 소수계 우대정책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할 명목을 잃어가고 있었다. 두번째, 우리 모두는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수계 우대정책은 좌익세력들에 의해 목표로 세워진 여러 철학적 원칙들의 확실한 예증들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종류의 원칙들이 언론 규범을 주장하는데 다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인종적 소수계 우대정책을 위한 주장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 하나의 그룹으로의 흑인은 오래전부터 백인의 탄압에 고통을 받아왔었다. 그러한 과거에 행해졌던 일들이 분명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에,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경우, 해를 당한 그룹은 그 해를 끼친 그룹으로부터 그에 알맞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의 구성원으로서의 백인은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서의 흑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울 것 이다: 위에 언급된 “대가”는 오늘날의 세대에게는 불공평한 것이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오늘날 한 세대의 개인이, 그것도 노예제도와는 무관한 백인이, 노예제도와는 상관도 없는 흑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의 대립된 두 주장이 바로 뜨거운 논쟁을 대표하는 주장들이다.

한 쪽의 주장은 다음의 질문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개개인들을 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대해야 하는가, 아님 그들을 하나의 개인으로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 그룹으로의 흑인을 다른 그룹의 백인과 반대지어 생각하는가, 아님 어떤 상황의 당사자들로서의 개인들로 보아야 하는가?” 소수계 우대정책 옹호자들은 흑인과 백인은 그들이 속한 인종적 그룹의 한 구성원으로 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를 하는 자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사람은 어떤 그룹의 한 구성원이라기 보다는 개인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는 집단주의(collectivism)이나, 개인주의(individualism) 이나에 관한 논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옹호자들은 노예제도로 인해 현재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우세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강한자들은 약한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경우, 우리는 강한 그룹에 속한 백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혹은 대학입학통지서를 약한

그룹에 속한 흑인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런 이타주의적 관점에 반대한다. 그들은 일자리나 대학입학은 한 개개인의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타주의(altruism)이나 혹은 능력에 따라 얻는다면 이기주의(egoism)이나란 논쟁을 갖게 된다.

다음의 전형적인 소수계 우대정책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자. 두가지의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원칙들이 등장하게 된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노예제도가 끝난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고, Jim Crow 도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영향은 아직도 지금 세대에 미치고 있다. 지난 날의 관습에 젖은 흑인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흑인들은 과거의 차별대우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뒤떨어졌고, 낙후되어 있다. 그들은 아마도 백인사회를 따라 잡을 기회조차 잃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회의 부와 일자리의 공평성을 위한다면, 우리는 지난날 불공평하게 분배를 받은 그들에게 오늘날 더 많은 것을 ‘불공평’하게 주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반대자들은 위의 주장을 듣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운다: “물론, 과거의 영향은 세대를 건너 건너 미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격히 인과의 결과이다: 그것들은 단지 영향일 뿐이다. 개개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지만, 각 개개인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드릴 지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수 백가지의 다른 삶의 잣대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 친구들, 운동 선수들, 혹은 영화배우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뒤쳐져있었다라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눠주는 것보다는 자유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포착에 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이 두가지, 자유와 기회, 를 풍족히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개개인들은 그들의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지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데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자유를 가진다. 소수계 우대정책대신에, 올바른 해결책으로는 각각의 개인들이 그들 자신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고, 좀 더 이상적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고, 기회를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두번째 주장으로부터 다음의 두가지 열띤 논쟁의 켄리가 되는 원칙을 살펴보자. 소수계 우대정책의 옹호자들은 사회 환경 결정론(social determinism)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세대들이 처한 상황은 그 전의 세대들에서 일어난 일들의 결과이다. 그들은 그 전 세대들의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들이다.”

다른면의 주장은 개인들의 의지(individual volition)를 강조한다. 개인들은 어떤 사회적 영향을 자신이 받아 드릴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개개인들이 재산과 기회산출에 있어 똑같아져야 하는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데로 삶을 영위할 자유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

결론적으로, 네가지의 원칙이 포함된 논쟁을 지금 우리는 다루고있다. 이 네가지 원칙이 소수계 우대정책의 주요 논쟁거리이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옹호자	소수계 우대정책의 반대자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타주의 (altruism)	이기주의 (egoism)
사회 환경 결정론	개인의 의지
평등주의	자유주의

현재, 소수계 우대정책은 오랜세월동안 방어적 위치에 있었고, 많은 소수계 우대정책 프로그램들이 나와있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회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좌익세력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소수계 우대정책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 버려야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다른 한가지의 방법은 대학교 언론규범이다. 앞으로 필자는 어떻게 이 언론규범의 논쟁이 위에 언급된 네가지의 원칙들을 (왼쪽컬럼에 나열된 원칙들)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평등주의

종종 필자는 Michael Jordan 과 일대일 농구 시합을 하는 환상에 젖곤 한다. 내가 공넣기 연습을 하는 동안 Michael Jordan 은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에게 게임을 할 것을 청했다. 그는 받아들였고, 게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있을지도 모를 반칙에 대비해서 심판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나 현실적 감각들이 그제서야 내 환상에 끼어들게 든다. 이 게임이 과연 어떻게 결론 지어 질까? 글쎄, 우리는 농구 규칙에따라 게임을 한다. Michael 이 100:3 으로 이겼다. 그가 약간 떨어져있을때 난 공을 던졌고, 그게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윤리학적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은 과연 공평한 게임이었을까? 두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좌익세력과 평등주의자들의 의견과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대답이 있다. 첫번째 대답은 Michael Jordan 을 상대로 Stephen Hicks 가 이길 확률은 전혀 없으므로 이 게임은 완전히 불공평한 것이다. Michael Jordan 은 전세계에서 유능한 농구선수이다. 필자는 8 inch 의 수직 점프능력을 가진 주말에나 농구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게임이 공평해 지기 위해선, 우리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평등주의자들의 대답이다.

다른 대답으로 이 게임은 완전히 공평한 게임이다란 것이 있다. Michael 과 필자는 둘다 게임을 하기로 선택을 하였다. Michael 은 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다. 나는 내가 지닌 수준의 능력을 얻기위해 그보다는 덜한 노력을 했다. 또한, 우리 둘다 농구 규칙을 알고 있고, 그러한 규칙을 지킬 심판까지 데리고 시합을 했다. Michael 은 시합이 시작되고 100 점을 얻을 만한 수의 샷을 성공시켰고, 나는 나의 3 점을 얻을 만한 샷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Michael 은 시합에서 공정하게 이겼고, 나는 다른 시합을 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답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평등주의자들의 “공평”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능력을 동일화하여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모두에게 주어야만 한다는 개념에 종착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타주의적 개념이 도입된다. 이타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을 위해 강자로부터 약자에게 그들의 능력을 나눠줘야 한다. 즉, 우리는 분배란 것을 하게 된다. 농구시합의 예를 들었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Michael 이 자신의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거나, 점프를 할때, 그의 발목에 무게추를 달아놓음으로서 그의 점프수준이 필자의 수준과 맞춰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널리 사용되는 운동 핸디캡 원칙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다른 가능한 전략으로 나에게 90 점을 먼저 주는 것도 있다. 이 경우 Michael 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행해지지 않는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미리 나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이 두가지 전략을 접목시켜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세가지 전략이 존재한다. (1) 강자가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2) 약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3) 두가지다 사용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있다. 평등주의자들 에게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능력이 똑같지 않으면, 공평함은 상실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란 전제 또한 발견된다. 그리고 두명의 참여선수들이 공평함을 가질 수 있게 하기위해 무엇인가를 분배한다거나, 강자들이 그들이 가진 강점을 100% 발휘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둔다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주의의 좌익세력들은 이 모든 점을 언론에 적용시키고 있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평”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있는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공평함을 주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덜어 준다거나 약자들에게 더 많은 언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혹은 둘다 사용 가능하다. 소수계 우대정책에 적용된 원칙또한 그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인종적 그리고 성차별적 불공평

그렇다면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가? 놀랍지 않게도, 좌익세력들은 인종적 그리고 성적 차별에 놓인 그룹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종적 그리고 성적 차별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 그들은 주시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직의 구성에 있어 인종적 그리고 성적 분포도가 어떠한가?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알아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이 그러한 불공평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재분배란 원칙으로 이러한 것을 고쳐야 한다고 한다.

그들이 발견하는 여러 불평등은 일부 경우에 사실이고,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이 그러한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분배란 원칙 말고, 우리는 각 개인이 이성적이기를 가르침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일단 개발 시키고, 보다 더 이상적이기를 권장한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두번째,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고, 개인의 특성, 성격, 지식, 그리고 능력에 바탕을 두어 자신과 남을 판단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한 사람의 피부색은 중요하지도 않다란 것을 가르쳐야 한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현실에서 위에 언급된 조언들은 그 이용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수계 우대정책에서도 사용되었지만, 그들에게 언론문제는 생소한 문제들이다. 그들은 사회건설적 인식론(social constructionist epistemology) 을 검열제도(censorship) 논쟁에 도입시킨다.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마인드 (Minds)

전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speech) 는 개인의 지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져 왔다. 포스트모던주의적 관점은 반대로 이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의 한 역할이기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속한 그룹의 언어적 습관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개인이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한다는 것은 거의 신화와도 같은 얘기이다. 또한 우리가 인종차별 주의자로 만들어진 다른 한 개인을 데리고 단지 그의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나쁜습관을 버리라고 전체의 그룹에게 그들의 사고력에 어필을하며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 또한 신화와도 같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Stanley Fish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의 글 *There's No Such Thing as Free Speech - and it's a good thing too*에서 그의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이 아니라, 인식론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의 전면적 자유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은 사상의 자유시장 (marketplace of ideas)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희망’과도 연관이 있다. 여기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함은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교류하는 하나의 포럼을 형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나의 요점은 사상적 제약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단순히 소리라기 보다는 의미를 지닌 주장으로서 말의 가치도는 ‘언론의 자유’ 사상이 몰아내려고 하는 것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오랜 시간동안 별다른 의구심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사상적 비전들을 없앤다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의미도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말한다는 것은 행위적 혹은 발언적 행위나 그런 것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결과들의 주된 배경지식에 반대되어 나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말하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배경지식 또한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비판적인 자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이 생성되는 곳에서 구성되었고, 그래서 의식의 생성은, 특히 말하는 것,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항상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즉 정치적인 것일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포스트모던주의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에 담겨져있는 사회적 구성도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 구성도가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우리들의 배경지식 혹은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Fish 는 추상적으로 요점을 표현하고 있다. Catharine MacKinnon 은 포르노규제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같은 요점을 남자와 여자란 특별한 케이스에 접목시킨다. 그녀의 주장은 기본적 보수주의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치 포르노가 남성들의 생리적 민감성을 줄여서 여성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게 한다란 듯한 주장. MacKinnon 은 포르노가 그렇게 한다라고 믿기는 하나, 그녀의 주장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그녀는 포르노가 우리 모두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담화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남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처음부터 여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섹스역할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잣대들을 마치 하나의 언어형식으로 포르노에 의해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말함과 행함에 자유주의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주창해 오던 만큼의 큰 차이가 없음을 알려준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에 의하면, 말함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행위의 한 형태로, 말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해로운 행위는 반드시 제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검열제도란 것에 찬성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또 다른 결과로는 각기 다른 그룹은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달리 구성된 배경으로 인해서, 그룹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다란 것이다.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졌으며, 그들의 각기 다른 언어적 사회적 사상적 세상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각 그룹의 구성원들의 언어적 표현들을 살펴보면 어떤 그룹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런 충돌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접어 들었다면, 이미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것 자체도 이미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로 만든 여러 상황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성적인 것은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서로를 향한 울부짖음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검열제도

다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자.

- 말함(speech)는 사회적 힘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 공평함이란 똑같이 말할 기회를 의미한다 (평등주의)
- 말하는 능력은 인종적으로 성별로 똑같지가 않다 (집단주의)
- 타인종들과 그리고 남녀사이엔 마찰이 있다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
- 더 강한 위치에 있는 인종적 그리고 성적 그룹은 , 즉 백인 남성, 언론의 힘을 자신의 이득에 맞게 이용할 것이고, 다른 인종과 여성의 희생으로 그 이용도를 높일 것이다 (제로섬: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다는 원칙)

여기서 우리는 말함의 본질에 대한 두가지의 입장을 보게 된다. 포스트모던주의 에 동참하는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함(speech)은 서로 다른 수준의 그룹들이 분쟁 관계에 놓였을때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말함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말함이란 “자유”로운 개개인들이 의사전달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가 만일 첫번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해결책은 일종의 강화된 이타주의적 형태가 될 것이다. 해를 당하고, 힘이 약한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기회를 재분배 해야 한다. 더 강한 백인 남성들이 다른 그룹에게 해를 입히는 수단으로 말을 사용한다면, 그들이 그러한 수단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자제 시켜야 한다.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해를 입히는 여러 명예훼손적 단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강한 힘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을 강조하는 혹은 우등화시키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와도 같다.

위에 언급된 식의 분석은 말함에 있어 “그 어떤 것”도 검열제도의 선에 올라와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포스트모던주의의 주장은 만일 “그 어떤 것”이 아무 제약없이 전달되어 진다면, 그것은 지배하고 있는 그룹에게 지배 당하고 있는 그룹의 현 상황을 유지하라고 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도 같다. 자유주의는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룹의 입을 막고, 지배하고 있는 그룹에게만 효과적인 언론의 기회를 주자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던주의의 언론규제는 단순히 검열제도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어떠한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은 피지배그룹을 지배세력으로부터의 강압과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들은 피지배그룹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규제는 마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능력을 동일화 시키는 것과 같다. Stanley Fish 가 다음과 같이 말하듯:

“개인주의, 공평함, 그리고 가치, 이 세가지 단어는 오늘날 존경할 만한 우리의 완고한 편견자들의 입에서 떠날 날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얀 두건이나 막대기를 들고 투표장에 갈 필요가 없음을 배웠다.” (p.68)

다른 말로, 언론의 자유가 Ku Klux Klan 이 원하는 것이다.

소수계 우대정책이나 언론규제에 반대를 하든 안하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에 따라 그리고 같은 규칙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은 백인이면서 남성인 그룹을 지배세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피지배세력으로 만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힘의 불균형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솔직한 이중표준 (double standards)이 포스트모던 좌익세력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미안해 할 필요조차 없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위의 주장은 포스트모던주의 세대에게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Herbert Marcuse 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미 분명하게 표현한 적이 있다: “인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익세력으로부터 편협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좌익세력에 대해 관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Herbert Marcuse, “Repressive Tolerance,” 109)

논쟁의 핵심

Ayn Rand 가 자주 강조하였던, ‘정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다. 언론의 자유와 검열제도에 관한 논쟁은 정치적인 전쟁이지만, 필자는 인식론, 인간 본성, 그리고 가치들의 중요성을 강조 안 할 수가 없다.

언론의 자유와 검열제도에 관한 오늘날 논쟁의 핵심엔 세가지의 주요 논점이 있다. 그것들은 전통적으로 철학적인 문제들이 다.

첫번째, 인식론적 문제가 있다: 사고(reason)는 지각적인가? 사고력의 지각적인 효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회의론과 주관론의 여러 형태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회적 주관주의의 형태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사고력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지는 것이라면, 그 사고력은 현실을 알아가는 도구는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던주의적 인식론적 주장은 반드시 도전을 받고 거절당해야 한다.

두번째,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의지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단지 사회 환경의 산물인가? 말함(speech)이 진정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오늘날의 우리로 만든 사회적 조절의 한 형태인가?

세번째는 윤리학적 문제가 있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자기책임화를 향한 헌신을 이 발언(speech)의 분석에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와 같은 논쟁이 평등주의나 이타주의의 면목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은 아닌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포스트모던주의는 사회적 주관주의적인 인식론, 인간본성의 사회적 결정론, 그리고 이타주의적 평등주의적 윤리를 전제로 한다. 언론규범은 그러한 믿음의 논리적인 적용방법이다.

언론 자유의 정당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유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인식론에서의 객관성, 인간본성의 의지, 그리고 윤리학의 개인주의(egoism)이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자리에서 이 세가지 모두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의 목표는 그것들의 논점과, 앞으로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지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세가지의 논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번째는 개인의 자발성이라는 윤리학적 관점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있고, 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알고, 그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개인에 따른 책임에 달렸다. 그러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사회적인 자유를 필수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자유는 발언권(speech)이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안하거나 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두려움이란 사회적 환경에 의해 구속되어 질수 있다. 그것이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검열제도는 정부차원의 일이다. 정부는 그것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힘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부는 두려움이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한 개인이 한 사회에서 책임감있게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각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과 대립하게 된다.

두번째로 사회적 논점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서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느낀다. David Kelley 은 그의 책 *Unrugged Individualism*에서 위의 논점을 자세히 적은 적이 있고, 필자는 그가 사용한 구분법을 사용해 보겠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지식의 가치를, 우정/사랑의 가치를, 그리고 경제적 교환의 가치를 서로 나눈다. 그리고 지식의 가치를 향한 추구는 전문화된 기관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진실의 발견은 그 기관의 자체적인 특정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가 서로서에게서 배운다면 그리고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종의 사회적 활동에 (논쟁, 비판, 강의, 엉뚱한 질문, 그리고 기타 등등)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주요 사회원칙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사회적 교류에 있어 그 어떠한 것에 관용적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견들과 감정들이 종종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겠는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면이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듯, 어느 믿음과 생각은 각 개개인의 책임이 된다. 정부의 목적은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생각과 발언(speech)은 그것들이 얼마나 공격적이든 혹은 잘못된 것이든 간에 어떤 누구의 권리도 침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간섭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체재의 한 부분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논점이 있다. 민주주의는 누가 정치적인 힘을 다음 세대에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그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표자들이 이미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정보는 많은 토론과 논쟁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끝으로, 언론의 자유는 공권력의 남용에 견제를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러한 남용에 대한 유일한 견제방법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세가지의 특별한 경우

다음으로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가능한 두가지의 논점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의 특별한 경우로 되돌아와보자.

첫번째로 자유주의의 핵심을 향한 언론의 자유란 논점을 살펴보자: 말함과 행위는 분명 다른 것이다. 필자는 당신의 감정을 훼손시킬 무엇인가를 말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필자는 자유롭다. 그러나 필자가 당신의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막대기로

당신을 때렸을 때, 필자는 그렇게 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부는 필자가 당신의 감정을 해친 경우보다 신체에 해를 가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포스트모던주의는 다음과 같이 행위와 말함을 구분하고있다. 말함(speech)은 결국에 음파가 공기를 통해 상대방의 귀에 전달되어 들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귀는 신체적 기관이다. 그래서 행위와 말함을 구분하는데 있어 형이상학적 근본은 없게 되고, 말하는 자체가 행위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분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와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로 나뉘어 진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나타나듯 당신이 총을 쏘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말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비교했을때 해를 입히는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우리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막대기와 돌맹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말하는 것은 신체적 활동이라는 첫번째 논점은 맞는 말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할 차이는 있다. 신체를 통하는 음파와 신체에 가해지는 야구 방망이의 영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둘다 신체적이라 볼 수 있지만, 당신이 감당할 수 도 없는 결과를 야구 방망이는 초래할 수 있다. 아픔의 정도는 당신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당신의 몸에 미치는 음파의 경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당신 의지력에 달려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해칠지는 그 행위의 지적인 부분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종적 그리고 성별에대한 적대적 발언

이것은 두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와 관련이 있다. 포스트모던 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 할 것이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역사를 옹바르게 되짚어 보는 사람은 우리 생활속에 많은 단어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소수계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소수계 사람들에게 미치는 여러 단어들의 영향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적대적 발언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적대적 발언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필자는 첫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할 일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유국가에서 일부 사람들은 적대감을 받을 만하다. 적대감은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한 사람의 가치에 타격을 입힌 반응이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논제는 잘못 된 것이다. 정의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대적 표현들은 어떤 경우에선 적절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좀더 직접적으로 위의 주장에 다가서 본다면, 인종차별주의자의 적대적 발언은 그 무엇 혹은 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 상대방이 그와 같은 발언을 받아 들인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지닌 발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된다: “그가 당신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해를 입히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첫번째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피부색이 당신의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두번째로 당신의 피부색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에게 중요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이 두가지를 다 받아 들인다면, 그제서야 당신은 당신의 피부색에 대해 발언을 한 사람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에 피부색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부색에 대한 다른사람의 의견은 그들의 무지를 들어내는 것에 불과하고, 당신의 무지 혹은 부족함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필자를 보고 “재수없는 백인”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반응은 나의 피부색이 성격적으로 재수없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저 사람은 분명 무식함에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대감을 들어내는 여러 발언에 관한 주장들은,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경우를 지닌 대학교

이젠 대학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포스트모던주의적 주장들은 교육이 전제로 하는 것과 주어진 교육의 목표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대학교 실정에 맞춰져 있다. 수업시간에 최소한의 시민성이 없다면,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시민성에 관련된 논점들을 내세우기전에 우리는 몇가지의 차이는 분명히 해둬야 한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필자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반드시 존재한다. 사립학교는 그들이 원하는데로 언론의 규제를 할 자유가 있다고 본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첫번째 수정법안이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언론의 규제를 그 어떤 대학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첫번째 수정법안과 교육의 자유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들 속에 필자는 교육의 자유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만일 교수들이 그들의 수업에 언론의 규제란 규칙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두가지의 이유로 그렇게함은 잘 못되었다고 보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 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필자는 왜 그들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가?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 그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고, 교수의 독재주의적 규칙들이 사방으로 소문이 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그 어떤 학생도 파로 나뉘는 곳에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옳지않은 수업규칙은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한 시장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언론규제는 교육의 과정이 지니는 진정한 면을 훼손 시킨다. 시민성은 중요하지만, 시민성은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그의 학생들에게 논쟁이 되는 사안들을 다루는 법을 자신이 직접 본보기가 되어 보여줘야 한다. 그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민감한 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때, 인신공격, 모욕, 위협으로 학생들이 결론짓지 않는다면, 분명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만일 교수가 수업중에 말썽을 일삼는 학생을 접하게 된다면 (인종차별주의적 그리고 성차별주의적 문제들은 일부 제한된 개인들의 문제이다), 교수로서 사상적으로 달리 속했다는 이유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 학생을 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가진다.

올바른 교육의 필수조건에 관한 여러 논점들이 보여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들이 있다. Socrates 의 처형후에 Athens 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Galileo 의 침묵이루 Renaissance Italy 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식을 향한 추구는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C. Vann Woodward 의 입장에 동의를 한다:

대학교의 존재목적은 그 기관에 속한 학생들이 그들 자신들에 대해 안정감 혹은 만족감을 갖게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속에 있건 바깥에 있건간에 많은 이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공격적이면서도 새롭고도 도발적이고 그리고 교란을 일으키고 인습적이지 않고, 또한 충격적이기까지 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적으로 대학교가 정치적, 박애주의적, 온정주의적, 그리고 치료학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학교는 클럽이거나, 조화와 시민성을 강화시키는 친목단체는 아니다. 대학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는 장소이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토론해보는 장소이고, 도전되어 질수 없던 것에 도전을 해보는 장소이다. 이것은 Justice Holmes 의 말대로,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자들을 위한 자유로운 생각보다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를 위한 생각의 자유'를 의미한다. (C. Vann Woodward, Sterling Professor Emeritus of History, Yale University, *The New York Review*, 1991)

이것이 대학교의 일차적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고력의 기능에 관한 객관주의적 논점에서, 필자는 Thomas Jefferson 이 University of Virginia 의 설립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관은 인간 사고의 무제한적 자유를 기초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이 어디로 우리들을 이끌어갈 지 두려워 하지 않는다, 또한 사고력이 여러 실수들에 반응하는 한 그 실수들에 대해 관용적이 되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Stephen Hicks, Ph.D., 는 Illinois 에 위치한 Rockford College 철학과 교수이다. 그는 The Center for Ethics and Entrepreneurship 의 책임자로 또한 재직 중이다. 그는 이메일 SHicks@rockford.edu 혹은 그의 홈페이지 이메일 Stephen@StephenHicks.org 를 통해 연락가능하다.

이 에세이는 *Navigator* 2002년 9월-10월호에 실렸던 내용이다.